



코미디 다시 웃을수 있을까

원조 디바들의 귀환

이소라·인순이·엄정화·김완선 등 활약

‘개콘’ 재개·‘코미디 로얄’ 시작 수년간 유튜브 중심으로 재편 변화된 새로운 트렌드 모색 필요



공개된 넷플릭스의 ‘코미디 로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웃음을 추구하는 ‘개그 콘서트’, 누가 더 크게 웃길지 코미디언들이 대결을 벌이는 ‘코미디 로얄’.

◇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고 신인 위주인 ‘개그콘서트’

5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2020년 6월을 끝으로 시청자의 곁을 떠났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방영을 이달 12일 재개한다.

500명의 일반 방청객을 초청해 이달 1일 진행한 공개 녹화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미디를 향한 시청자들의 목마름을 보여주듯 정원의 다섯 배가 넘는 2614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3년 반 만에 이뤄진 만큼 녹화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다. 코너를 시작할 때 음악이 제때 나오지 않거나 출연자의 얼굴에 부착한 마이크가 땀 때문에 떨어져 공연이 잠시 중단되는 등의 해프닝이었다.

실수에도 박수를 보낸 관객의 격려에 힘입어 녹화는 무사히 마무리됐고, 편집을 비롯한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출을 총괄하는 김삼미 책임프로듀서(CP)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새로 출발하는 ‘개그콘서트’의 특징을 “주말 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웃음을 위해 과감하고 선정적인 소재도 마다하지 않는 유튜브나 OTT와 달리 ‘개그콘서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볼 수 있는 편안한 재미를 추구한다는 취지다.

신인 위주로 구성된 것도 특징이다. 전성기를 이뤘던 김원호, 정범균, 정태호, 박성호 등도 출연하지만, 대다수 코너의 중심에는 신인 코미디언이 기용됐다.

◇ 베테랑 코미디언들의 웃음 대결 ‘코미디 로얄’

‘개그콘서트’가 편안한 웃음과 신선한 얼굴을 내세운다면 넷플릭스의 ‘코미디 로얄’은 강한 웃음과 이미 검증된 캐릭터를 가진 베테랑을 전면에 세운다.

넷플릭스는 28일 공개 예정인 ‘코미디 로얄’을 ‘넷플릭스 단독 쇼를 론칭할 기회를 두고 K-코미디를 대표하는 20명이 나이, 경력, 계급장을 떼고 붙는 웃음 배틀’이라고 규정했다.

인기 있는 코미디언들이 모여 누가 가장 큰 웃음을 줄지 대결을 벌인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인물에게 향후 제작될 넷플릭스 단독 쇼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주어진다.

코미디의 대부 격인 이경규와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 공개 코미디의 황금기에 활동한 문세운·이용진·황재성·이상준·김두영, 유튜브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던 엄지윤·나선옥 등 쟁쟁한 출연진이 나선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OTT의 특성상 높은 수위의 코미디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유튜브 중심으로 재편된 코미디... 변화한 트렌드 수용이 관건

코미디 프로그램은 과거 ‘개그콘서트’ 뿐 아

니라 SBS의 ‘웃음을 찾는 사람들’ tvN의 ‘코미디빅리그’ 등이 각축을 벌이며 제각기 큰 인기를 누렸으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쇠퇴했다.

MBC는 2014년 종영한 ‘코미디의 길’ 이후로는 지역 방송국을 제외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의 명맥이 끊겼다. SBS에서는 2017년 ‘웃음을 찾는 사람들’ 이후 코미디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개그콘서트’의 침체에 높은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빅리그’ 역시 시청률 부진에 시달리다 올해 9월 13일을 끝으로 방송이 잠정 중단됐다. 휴식기를 가진 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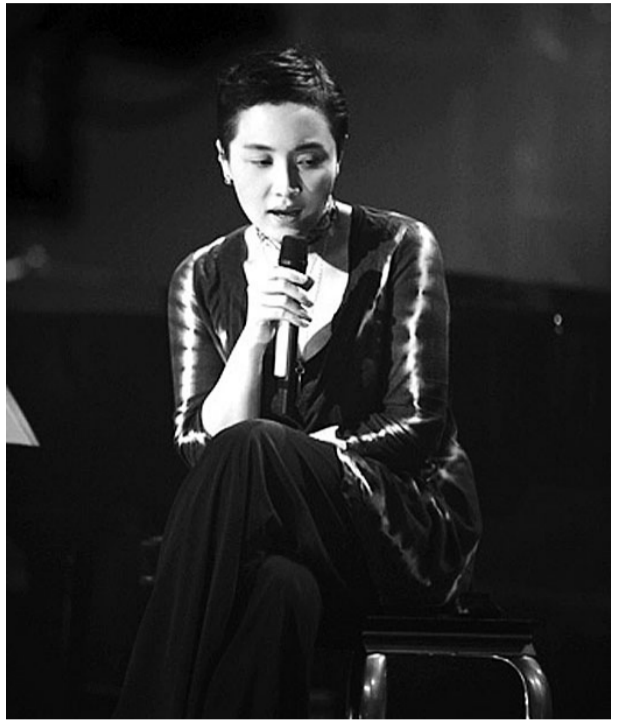
시즌제로 운영되는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야’를 제외하면 코미디를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코미디 프로그램의 공백기에 유튜브의 짧은 스케치 코미디가 급격히 성장했다.

무대를 잃은 신예 코미디언들은 대거 유튜브에 진출해 참신한 아이디어의 코미디로 주목받았다. 유튜브 채널 ‘웃박스’ ‘웃기시네’ ‘싱글빙글’ ‘하이픽션’ 등이 대표적이다.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 다시 코미디의 중흥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 폐지된 프로그램들에 쏟아졌던 ‘식상하고 재미없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재현 ‘개그콘서트’ PD는 제작발표회에서 이와 관련해 “공개 프로그램만 코미디였던 시대가 있었다”며 “비교할 레퍼런스(참고할 창작물)가 비슷한 것뿐이었다”고 털어놨다.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간 느낌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시장이 발전하고 OTT 덕분에 다른 코미디의 붐이 있다”며 “받아들이기 부분은 받아들이고 식상함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소라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고음, 좌중을 압도하는 여유로운 몸짓과 섬세한 표현력.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공개된 KBS 2TV 음악 예능 ‘골든걸스 1:2’회에서 원조 디바 4인이 펼친 노련한 무대는 그들을 수식하는 수많은 타이틀도 무색할 정도였다.

가수 신승훈, 박미경, 인순이, 이은미는 ‘요즘 노래’를 그들만의 색으로 풀어내는 능숙함으로 음악에 대한 갈증을 단숨에 해소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최근 가요계에서는 이렇처럼 1990년대 무렵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스타들이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리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연말 콘서트뿐 아니라 음원 발매, 예능 출연까지 그야말로 종합무진 활약하며 ‘유희기간’ 없이 얼굴을 내비치고있는 것이다.

수년 만에 성사된 단독 공연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김완선은 이달 18일 서울, 12월 16일 부산에서 단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1986년 ‘오늘밤’으로 데뷔한 김완선은 ‘리듬 속의 그 춤을’, ‘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등으로 댄스퀸 반열에 올랐다. 그간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단독 콘서트를 여는 건 약 5년 만이다.

연기 활동을 위주로 존재감을 드러내 왔던 엄정화도 다음달 9~10일 서울, 23일 대구, 31일 부산에서 무려 24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그는 1990년대 ‘배반의 장미’, ‘조대’, ‘포이즌’, ‘페스티벌’ 등 히트곡을 남기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최근까지도 무대에 서는 일은 드물었다.

독보적 음색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가수 이소라 역시 데뷔 3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로 4년 만에 팬들을 찾는다.

이 밖에 데뷔 20주년을 맞은 빅마마, 발라드 가수 린과 거미 등 2000년대를 휩쓴 디바들도 12월 단독 공연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원조 디바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배경으로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중장년 소비층의 지지를 꼽는다. 이소라는 예매 개시 1분 만에 연말 콘서트 티켓 매진을 기록하며 탄탄한 팬층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선결혼 후연애’ 안방극장 계약결혼 바람

드라마 ‘마이 데몬’·‘열녀박씨...’·‘손해 보기 싫어서’ 방영 예정

“갑과 을은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완벽하게 연출한다. 계약은 잊지 않았겠지?”

송강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유정의 손을 잡고 넷째 약지에 반지를 끼운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단상 위에서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 부부의 표정은 아리송하다. 이달 24일 처음 방송되는 드라마 SBS ‘마이데몬’ 속 한 장면이다.

5일 방송가에 따르면 계약 결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속속 안방극장을 찾고 있다.

‘마이데몬’은 악마 같은 재벌 상속녀와 한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악마가 계약 결혼을 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다.

같은 날 처음 방송하는 MBC 금토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도 가짜 결혼을 소재로 내세웠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열녀박씨

계약결혼’은 조선시대 열녀 박연우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눈을 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MBC 사극 ‘웃소매 붉은 굿동’(2021) 등에서 열연을 펼쳤던 이세영이 박연우를 연기한다.

박연우는 혼례 첫날밤 남편을 잃고 괴환에게 납치당해 우물에 던져진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눈을 뜨고, 사별한 남편과 이름은 물론 얼굴이 똑같은 남자 강태하를 만나 계약 결혼을 하게 된다.

내년 티빙과 tvN에서 공개되는 ‘손해 보기 싫어서’ 역시 가짜 결혼을 소재로 한다.

손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짜 결혼식을 올린 여자 손해영과 피해주기 싫어서 가짜 신랑

이 된 남자 김지욱의 로맨스를 그린다. 신민아와 김영대가 부부 호흡을 맞춘다.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주변과 나눠야 했고, 연애도 손익분기점을 밑돌기 일쑤였던 손해영은 회사에서까지 승진을 놓칠 위기에 놓이자 가짜 결혼식을 꾸민다.

계약 결혼은 과거부터 드라마 속 인기 소재로 활용돼왔다. 주로 결혼으로 맺어진 두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는 전개로 크게 비껴가지 않는다. 먼저 결혼하고 후에 연애하는 전개인 R 틀은 예측할 수 있지만, 결혼의 환상을 녹여낸 장면들이 나름의 설렘을 자아낸다.

다. /연합뉴스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진화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